



〈성가정〉,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마태 2,19-21)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1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 1)

[복음 환호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복음] 마태 2,13-15.19-23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3] 성 요셉과 성 마리아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183]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114] 나자렛 성가정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로 지내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 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 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431년)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 로 정하였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 1일(수) 오전 8시, 10시

†묵상

한 가정의 행복은 하느님의 선물이므로 가정의 일원들에게 헌신과 애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행복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줄 때 충만해집니다.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한 헌신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기와 그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자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헤로데 임금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험이 닥쳐오자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일어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피신합니다. 부리나케 떠나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은 성과와 집과 친구들을 모두 버립니다. 그의 행복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로데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래아의 작은 고을, 나자렛으로 갑니다. 요셉의 태도는 하느님의 부성에 대한 반영과 동참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참으로 걱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요셉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 주십니다. 요셉의 배려는 하느님의 배려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에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요셉의 가정은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애정이 이기적으로 변하면 나쁜 감정과 관계 때문에 불목이 가정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가장 힘없는 이들,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소홀히 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가정의 소명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 축제를 지내는 우리 교회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사랑의 가정 안에 하느님의 구원이 내려왔습니다. 소박한 가정에 맡겨진 거룩한 소명이 인류 구원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부부의 사랑과 헌신 속에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거룩함은, 혼인이 하느님의 성사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강복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 당신의 특별한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 소명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 이들은 그들 안에 맡겨진 하느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혼인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그 자체보다는 혼인에 따르는 사회 경제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이들은 혼인의 의미를 부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인격의 성장과 자아의 완성에 두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기주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혼인이 갖는 성사적 의미를 일깨우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혼인 교리를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우리는 경쟁의 싸움터로 내몰린 오늘날의 가정이 겪는 위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희망하는



부모는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갖는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능력만을 키우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가 겪게 되는 부담과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가정의 상처로 돌아옵니다. 가정은 단지 유능한 자녀를 기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의 생명을 품고 기르는 하느님의 성소입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의 송고한 뜻이 자녀에게서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는 가운데 부부의 성덕을 키워 나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가정의 소명은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지켜주고, 성장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을 돌보는 주체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결핍이나 장애, 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냉대로 힘겨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주변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삭막한 세태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웃 가정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최고의 소명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가정과 가정의 연대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사랑과 나눔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게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CCD News

Christmas SPECIAL ACTIVITIES

December 15, 2019



On the 15th of December, our parish Sunday School CCD classes were filled with special activities to celebrate the Advent season and prepare Christmas.

Children from Kindergarten to the 8th grade not only engaged in making Christmas Cards and decorating cookies, but also spent time to pray the Holy Rosary with their personal intentions and assembled personal grooming kits for the homeless. With your generous support, a total number of

207 kits were delivered to the Mobile Response Center of the 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Arlington.

On behalf of the all CCD catechists and staffs, I want to thank our wonderful PTO, CCD Room Parents and all the parents who helped out throughout the whole event. Thank you and we wish a very Merry Christmas to you all.

- Yunchong Boyle (Clara)

The Holy Family: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29, 2019

The Feast of the Holy Family is a liturgical celebration in the Catholic Church in honor of *Jesus of Nazareth*, his mother, *the Blessed Virgin Mary*, and his foster father, *Saint Joseph*, as a family.



'Holy Family and Trinity'-
by Jacob de Wit, 1726,
Amstelkring Museum, Amsterdam

The primary purpose of this feast is to present the Holy Family as a model for Christian families. Veneration of the Holy Family was formally begun in the 17th century by *Saint François de Laval*, the first bishop of New France, who founded a Confraternity. The feast was instituted by *Pope Leo XIII* in 1893 and set on the Sunday within the Octave of the Epiphany; that is to say, on the Sunday between January 7 through January 13, all inclusive. Since the 1969 revision of the General Roman Calendar, the Feast is held on the Sunday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if both are Sundays, the feast is celebrated on December 30th.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7일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https://www.catholicculture.org>>, <<http://www.cbck.or.kr/>>

Prayer of St. John Paul II for all families

Lord God, from You every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 takes its name. Father, You are love and life.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born of woman, and through the Holy Spirit, the fountain of divine charity, grant that every family on earth may become for each successive generation a true shrine of life and love. Grant that Your grace may guide the thoughts and actions of husbands and wives for the good of their families and of all the families in the world. Grant that the young may find in the family solid support for their human dignity and for their growth in truth and love. Grant that love, strengthened by the grace of the sacrament of marriage, may prove mightier than all the weaknesses and trials through which our families sometimes pas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the Holy Family of Nazareth, grant that the Church may fruitfully carry out her worldwide mission in the family and through the family. We ask this of You, Who is life, truth and love with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부부의 기도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2019년 ME 성탄 축하 파티





Giving Tree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 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성당의 ME 부부들이 주최한 성탄 축하 파티가 Westfield Golf Club에서 12월 8일(일) 개최되었다. 파티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이었으며 ME 부부뿐 아니라 일반 교우 및 인근 교회의 신도들도 함께한 뜻깊은 모임이었다.

“부부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한 파티는 사제 ME 회원이신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의 인사 말씀과 “사랑하는 마음(송창식 작곡)”과 “위대한 약속(김종환 작곡)”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식사 후 성당의 밴드 동호회 “Good Friends”가 몇 달에 걸쳐 준비한 성가를 시작으로 수준 높은 댄스 음악 및 70-80 음악을 연주하여 많은 참석자들을 댄스 스테이지로 불러냈다. 또한 재치 있는 사회로 진행된 팀 별 퀴즈 대항은 재미를 더했으며 기증받은 여러 상품을 승리한 참가자들에게 선물하였다. 특히 성당과 인근 장로교회의 신도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앙상블 그룹이 여러 종류의 하모니카로 합주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요한 17,21)” 하고 성부께 기도하시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송년미사

- 12월 30일(월) 오후 7:30(미사 후 간단한 친교)
※ 오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일시: 12월 31일(화) 오후 7:3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1월 1일(수) 오전 8시, 10시

1 송년 잔치

- 일시: 12월 30일(월) 오후 7:30 미사 후 (친교실)
- 송년 미사 후 송년잔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전 교우들이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송년 잔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루카회 연말파티 및 총회 (60대)

- 일시: 12월 29일(일) 오후 6시(성당)
- 문의: 강세원 바오로 (703)489-3938

3 병자 영성체

- 일시: 1월 3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4 성체 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주일학교 휴강

- 2019년 12월 29일(일)
- 첫 영성체반 휴강: 2020년 1월 1일(수)

6 동전 모이기 저금통 배부(복자부 주관)

- 불우 이웃돕기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주님공헌 대축일 (1월 5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동전 분류 작업

- 주님공헌 대축일에 봉헌하는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주시길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 소피아 (703)314-0905

8 구역임원 교육

- 일시: 1월 5일(일) 오전 11:30 (B-1,2)

9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월 5일(일) 오후 1시 (B-1)

10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1월 5일(일) 오후 1시 (A-3)

11 본당 달력 배부

- 2020년 본당 달력을 친교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2 2019년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공지서 발급 관계로 2019년 교무금을 12월 29일(일)로 마감합니다. 2019년 교무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교무금 카드는 세공금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13 2020 성인 시청각통신 성서교육 과정 신청

- 내용: 바오로딸 성서교육 과정 (초급 2년 + 중급 4년)
- 등록: 사무실, 친교실 (1년 학비 \$184
체크 / Pay to: Daughter of St. Paul)
- 마감: 12월 29일(일)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4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일정: 2020년 1월 24일(금)
- 참석 인원: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12월 29일부터 4주간
- 문의: 사무실 (703)968-3010

15 25주년 기념 묵주기도 1백만단 봉헌

- 본당승격 25주년을 맞아 본당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며 1월 1일부터 묵주기도 1백만단 봉헌을 시작합니다. 또한 '25주년 기도문'을 매 미사 전에 봉헌하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구유를 만드신 전례부와
현관 앞 구유를 제작한 로고스와
성당 트리 장식을 위해 애써주신 봉사자 여러분,
대 친교를 준비해 주신 성모회와
아름다운 미사를 위해 애쓰신 제대회, 성가대,
복사단, 핸드벨 팀, 재무부, 문화부, K of C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2월 29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주일학교 휴강, 루카회 송년 파티 및 총회(오후 6시)
30일(월)	성탄 팔일 축제 제6일	평일미사(오전 6시) 없음, 송년미사(오후 7:30)
31일(화)	성탄 팔일 축제 제7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1월 1일(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대축일 미사(오전 8시, 10시), 성당
2일(목)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사무실 휴무
3일(금)	주님 공헌 대축일 전 금요일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강복), 회장단회의(오후 8:30, 회의를)
4일(토)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첫 토요일(오후 6:15, 성당)
1월 5일(일)	주님 공헌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A-3)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그동안 밀린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일(목) 오후 5:00-6:00
1월 3일(금) 저녁 8:00-9:00
1월 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10강): 레오 대 교황과 야기 예수의 데레사 - 윤원진 비안네 신부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월 1일(수) 오전 6:15-6:45
1월 4일(토) 오전 8:00-8:30



-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 '행복 특강' (3부)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2월 22일(대림 제4주일)

주일헌금	\$8,844.00
교무금	\$26,34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8,490.00
특별헌금	\$380.00
2차헌금	\$0.00
합계	\$54,05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구역	주차장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럴, 비엔나, 일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운드,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앙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승(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재승(가버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나), 이영민 (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훈(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정수지(요안나),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천), 안법진(다니엘), 제이스 영학 (마틴), 이상목 (다윗)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